

# 20대 남자 한복 기성복화를 위한 바지·저고리 패턴개발

강순제<sup>1)</sup> 홍나영<sup>2)</sup> 남윤자<sup>3)</sup> 조효숙<sup>4)</sup> 황의숙<sup>5)</sup>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부교수<sup>2)</sup>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sup>3)</sup>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sup>4)</sup>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과 조교수<sup>5)</sup>

## The Pattern Standardization for the Ready Made Korean Traditional Costumes for Men in Twenties

Soon-Jae Kang · Na-Young Hong · Yoon-Ja Nam · Hyo-Suk Cho · Ui-Sook Hw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sup>1)</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sup>2)</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sup>3)</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 Won University<sup>4)</sup>

Dept. of Traditional Clothing, Baiwha Womans Collage<sup>5)</sup>

### ABS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ready made Hanbok for the people in their 20's, this study aims to develop Bagi-chogori pattern that revives the esthetic quality of the traditional Hanbok as well as comfortably fit the body.

Direct method was used in Measuring the 33 parts of men which was selected as items needed for the analysis of the body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s. In accordance with the body measurement and the analysis of the result, the bust girth and height which has interrelation, was chosen as the standard size for the development of pattern.

Men's Baji-chogori(Korean traditional Jacket and Pants) which doesn't request fitness for instance, we drew out a cross table by giving 5cm intervals each for breast, waist, hip girth and height. Size system of Baji-chogori was 4 steps, 1st was bust 95cm, height 165cm, 2nd was bust girth 95cm, height 170cm, 3rd was bust girth 100cm, height 175cm, and the 4th was bust girth 105cm, height 180cm.

In the case of Men, the grouping of bodies was attempted by concentrating on the difference of the drop amount(Bust girth to hip girth). However, 90% of men in their 20's showed a silhouette of an inverted triangle. Therefore, attempt for an additional grouping wasn't made. Only calculation concerning

the ease amount of items such as bust width and length was considered to enhance the silhouette of Hanbok when worn. Men's body for instance have a tendency to change to a rectangular shape as they get older. Especially, the abdominal girth trend to increase greatly. So, study and development of pattern should be made for all age groups.

Key Word : 바지, 저고리, 남자, 기성복 패턴, 20대, 한복

## I. 서론

과거의 한복 제작은 가정에서 경험에 의해 터득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한복의 본 제작법 및 한복구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운 교재들이 출간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본에 의한 본격적인 한복의 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즈음부터 맞춤에 의한 한복의 제작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생활이 점차 서구화됨에 따라 한복은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복의 제작도 가내봉제에서 한복맞춤점으로 이행하여 왔다. 앞으로는 점차 기업화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성 한복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요즘의 젊은 층들은 한복도 사이즈, 색상과 장식 등을 자신들의 감각으로 다양한 상품 중에서 골라 입기를 원한다.

따라서 한복의 수요증대와 대중화를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복 기성복의 부정확한 치수체계나 패턴, 다양하지 못한 디자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기성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표준 치수의 제정과 연령별 신체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제도법 및 패턴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한복의 기성복산업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맞춤복에서도 표출되고 있는 부적절한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에도 기

여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한복패턴개발의 첫 연령층으로 2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sup>에 이어 20대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연령층은 결혼을 계기로 한복을 입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데 현재 20대들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는 체위가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20대를 대상으로 정확한 인체계측결과를 토대로 한 한복 표준치수 설정과 패턴개발은 한복 착용 인구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나 한복에 대한 인식 전환의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기성 한복 치수의 표준화를 위한 체형 파악과 원형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20대 남자를 대상으로 직접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치를 분석, 고찰하여 20대 남자를 위한 바지저고리 치수표를 제안하고 기존 패턴의 문제점을 분석, 고찰하여 기성 한복을 위한 패턴을 개발하였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대 남자 468명을 측정하여 그 중 자료가 미비하거나 이상치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44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출생지

1) 강순제,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 황의숙(1999.1), 『복식』, 42호, 한국복식학회, pp.127-136  
강순제, 황의숙,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1999. 5), 『복식』, 44호, 한국복식학회, pp.77-89

와 주성장지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출생지와 주성장지

장 소	남 자			
	출 생 지		주 성 장 지	
	인원수 (명)	백분율 (%)	인원수 (명)	백분율 (%)
1. 서울/경기	201	45.1	233	52.2
2. 충청도	83	18.6	78	17.5
3. 경상도	89	20.0	81	18.2
4. 전라도	50	11.2	33	7.4
5. 강원도	16	3.6	14	3.1
6. 제주도	3	0.7	3	0.7
합 계	446	100.0	446	100.0

2. 측정시기 및 방법

예비조사는 1997년 2월 10일에서 5월 23일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본 측정은 1997년 4월 14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패턴개발 후 시착 상태의 측정과 착의실험은 1997년 8월 8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인체측정방법은 R. Martin의 인체 측정 방법과 공업 진흥청의 KS A 7003(인체측정용어) 및 KS A 7004(인체측정방법)에 설정된 측정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였다.

측정용구는 마틴의 인체 측정기(Martin's Anthropometric Instruments)를 사용하였으며, 피측정자는 몸의 윤곽선을 누르지 않는 정도로 신축성이 좋은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체형분석 및 한복패턴개발에 필요한 항목으로 33개 부위를 선정하여 직접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항목과 신체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3. 기존 바지저고리 패턴분석과 착의실험

남자 한복 원형 중 업계와 학계의 패턴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저고리 3종, 바지 2종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예비 착의실험과 본 착의실험을 통하여 기

<표 2> 남자 신체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항 목	남 자		항 목	남 자	
	평균(cm)	표준편차(cm)		평균(cm)	표준편차(cm)
1) 키	171.94	5.49	18) 엉덩이길이	18.15	1.83
2) 뒷목높이	145.65	5.32	19) 바지길이	95.73	4.17
3) 뒷허리높이	100.01	4.14	20) 앞뒤밑위길이	67.15	4.25
4) 살높이	75.52	3.96	21) 대퇴둘레	53.17	4.35
5) 목둘레	35.69	1.71	22) 발목둘레	23.09	1.58
6) 윗가슴둘레	92.69	5.48	23) 발목높이	6.87	0.53
7) 진똥둘레	41.72	2.89	24) 뒤목너비	12.43	0.88
8) 손목둘레	16.37	0.89	25) 가슴너비	31.03	2.41
9) 어깨끝점사이길이	42.27	2.42	26) 허리너비	26.28	1.96
10) 화장	78.04	3.39	27) 엉덩이너비	32.40	1.64
11) 뒤통	41.11	2.70	28) 진똥두께	11.00	1.19
12) 등길이	47.26	2.59	29) 가슴두께	20.51	1.87
13) 앞중심길이	40.15	2.50	30) 허리두께	18.50	1.71
14) 앞길이	47.57	2.50	31) 엉덩이두께	22.45	1.99
15) 앞똥	36.13	1.97	32) 밑위길이	24.07	1.91
16) 소매길이	58.92	2.69	33) 허리둘레	76.73	5.22
17) 엉덩이둘레	93.45	4.66			

성 한복을 위한 세부 치수표와 패턴을 개발하였다.

#### 4. 세부 치수표와 표준치수 설정

인체측정자료의 분석과 착의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남자 바지저고리의 세부 치수표와 표준치수표를 제안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 1. 기존 바지저고리 패턴분석과 예비착의실험

(1) 기존 저고리 패턴분석과 예비착의실험 결과 남자 한복 원형 중 업계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턴 중 ㉠ ㉡ ㉢의 3가지 패턴을 선별하여 제작한 후 평균체형인 모델 1명에게 예비착의실험을 하였다. 모델의 신체치수는 키 172.8cm, 가슴둘레 101.8cm, 화장 80.5cm, 엉덩이 둘레 99cm 바지길이 100.8cm였다.

착의실험 결과 기존패턴 3가지 모두 앞폭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턴을 기초로 기존 패의 착의실험결과를 반영·보완하여, 남자 <그림 1>의 저고리 패턴 I안을 기초원형으로 제작하였다. 즉, 저고리의 앞폭은 B/4+5, 뒤폭은 B/4+4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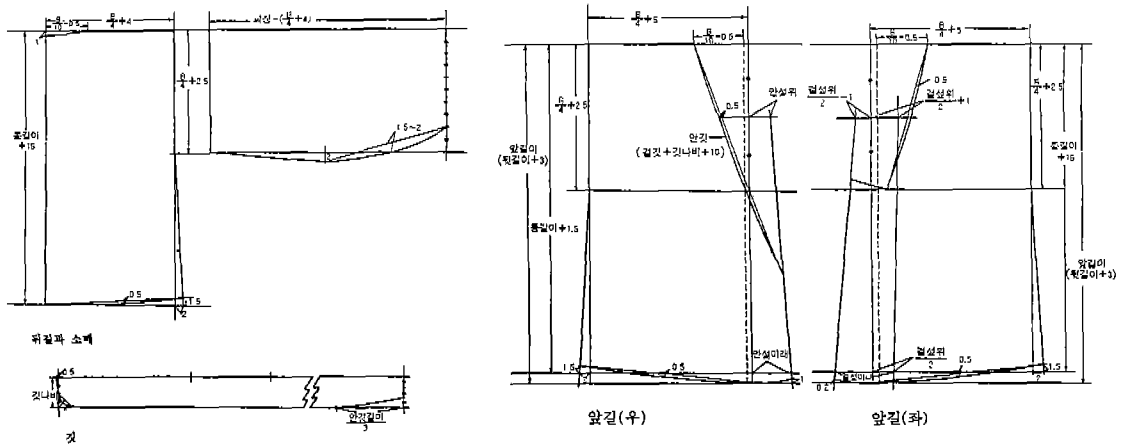
고리길이는 등길이+15, 진동은 B/4+2.5, 앞치짐은 2, 걸깃길이는 B/4+5, 안깃길이는 걸깃길이+깃나비+10, 걸섶아래나비는 깃나비+4, 안섶아래나비는 깃나비-3, 안섶 아래나비는 깃나비, 고대는 B/10-0.5, 고풀나비는 깃나비-0.5로 하였으며, 이를 폴리에스터 국사를 재료로 홀로로 제작하여 모델 1명에게 예비 착의실험하였다.

예비 착의실험 결과가 양호함에 따라 이 패턴으로 저고리를 제작하여 착의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 (2) 기존 바지 패턴분석과 예비착의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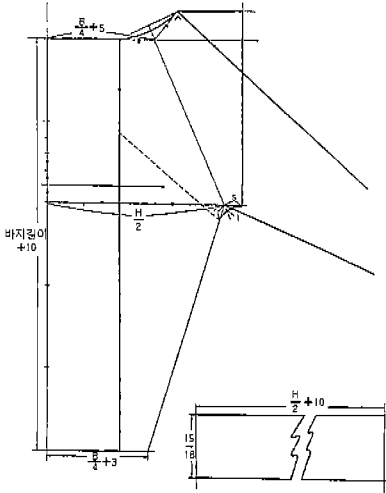
바지 패턴은 학계와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가지 패턴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체도의 편의성과 바지 밑의 각도, 바지 밑위길이 등을 고려하여 남자 바지패턴 ㉣에 기본을 두되 각 패턴의 장점을 취하여 남자 바지패턴을 개발하였다.

인체측측 결과를 보면 남자의 바지길이는 키와의 상관관계가 0.8375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평균신장은 171.9cm, 바지길이는 95.7cm, 엉덩이 둘레는 93.5cm로 나타났다. 이에 남자의 신장은 170cm, 바지측정길이는 95cm를 기준으로 하되, 한복 바지길이의 여유분을 고려하여 바지길이는 바지길이(측정치)+10cm로 정하였다. 따라서 치수의 차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바지길이가 증감되도록 하였다. 한편



<그림 1> 남자 저고리 패턴 I

바지부리가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바지부리는 ㉔패턴과 같이  $H/4+3$ 으로 하기로 하였다. 밑위길이는 남자 바지패턴 ㉔를 참조하였고, 이를 남자바지 패턴 I안으로 정하였다.



<그림 2> 남자 바지 패턴 I

이를 엉덩이둘레 100cm를 기준으로 홀바지로 제작하여 모델 1명에게 예비 착의실험을 하였다.

예비 착의실험 결과가 양호함에 따라 겹으로 각 치수를 제작하였다. 남자 바지길이는 키( $r=0.83$ )를 기준 삼기로 하였다.

## 2. 착의실험 및 평가결과

### (1) 1차 착의실험 결과

대다수 불특정 소비자들의 커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기성한복의 시제품을 네가지 사이즈로 구분하였다. 사이즈별 시제품 기본 치수는 인체측정 결과분석 및 논의에 준하여 90, 95, 100, 105로 구분하였다.<sup>2)</sup>

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양복에서는 드롭(drop)치(윗가슴둘레-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체형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복의 바지저고리는

풍성하고 여유있는 형태로 입기 때문에 별도로 체형을 구분하지 않았고, 한복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각의 사이즈에 공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적당량의 여유분 산정에 유념하였다.

### ① 피험자 선정

착의상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시제품의 기준치수별로 20~29세의 남자 각각 9~10명씩 모두 40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임의 추출된 피험자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적당한 시제품치수를 선택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시제품 기준치수가 누드사이즈의 가슴둘레 보다 5cm 크므로, 누드사이즈 기준치수  $\pm 2.5$ cm 범위에 해당하는 소비자를 피험자로 선정하여 해당치수의 시제품을 입힌 후 착의상태를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누드사이즈의 가슴둘레가 92.5~97.5cm 범위의 소비자는 시제품 기준치수 100의 바지 저고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시제품의 네 가지 기준치수는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와의 상관관계가 0.73으로 높게 나타나 본 착의실험을 위한 시제품에서는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바지와 저고리를 한 벌개념으로 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표 3> 바지저고리의 시제품치수 및 피험자 선정 신체치수

시제품 기준 치수	가슴 둘레(cm)
90 -165	82.5 ~ 87.4
95 -170	87.5 ~ 92.4
100 -175	92.5 ~ 97.4
105 -180	97.5 ~ 102.4

시제품을 피험자에게 착용시킨 후, 본 연구진 5명과 보조연구원 2명이 착의 상태를 관찰·기록하였다. 평가지는 저고리의 경우 전체적 외관, 착용감, 앞폭, 진동길이, 걸쭉선, 걸쭉나비, 안쭉나비, 고대나비, 깃나비, 걸깃길이, 안깃길이, 걸깃선과 걸쭉선

2) 문화체육부(1997.12), 『한복의 표준치수설정과 패턴표준화를 위한 연구』, p.17.

의 균형, 앞도련선, 저고리 앞길이, 고름나비, 고름길이, 화장, 수구 배래선, 뒷폼, 고대깃의 파임정도, 뒷길, 뒷도련선 등 13항목을, 바지는 전체적인 외관, 착용감, 바지길이, 밑위길이, 바지폭, 허리둘레, 마루폭과 사폭의 균형, 부리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을 5점척도로 작성하였다.

② 1차 착의실험 평가결과

· 저고리

앞뒤길이가 모두 1~2cm정도 짧아 보였다. 저고리 길이를 늘임과 동시에 깃의 결깃길이도 1cm정도 길게 하는 것이 편안해 보였다. 깃나비는 전체적으로 적당하였으나 끈은 깃 상태에서는 목과의 밀착도가 커서 답답한 느낌을 들게 하므로 고대부분의 깃나비를 1cm 좁게 하여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저고리의 폼은 비교적 잘 맞았으나 화장은 2cm정도 짧았다. 설패선은 비교적 잘 맞았다. 고름은 5cm 정도 짧았다.

· 바지

바지의 통과 밑위길이는 만족스러웠으나, 밑아래 부분에서 대넘을 매고 난 후 블라우징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치수가 커질 수록 그 정도가 심했다. 따라서 바지의 밑위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의 길이에 여유를 주도록 패턴을 수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③ 1차 착의실험 후 패턴의 수정

· 저고리

저고리길이 : 등길이+15cm에서 등길이+등길이×1/3cm로 수정

깃길이 : 1cm 길게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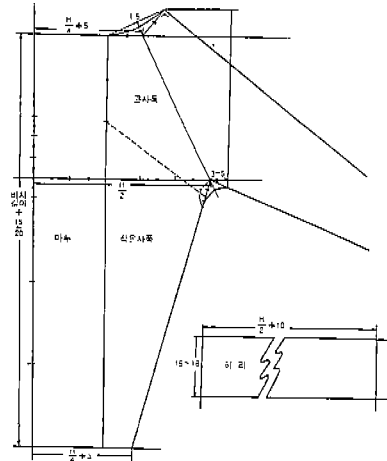
화 장 : 2cm 길게 수정하였다.

고 름 : 5cm 길게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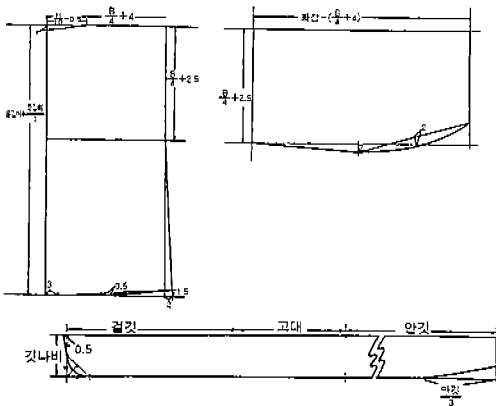
· 바지

바지길이 : 사이즈별로 5-7.5cm의 차등을 주어 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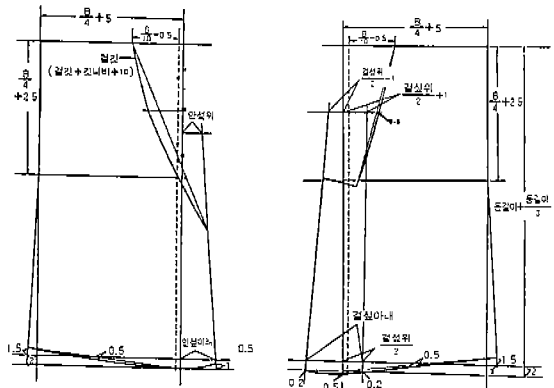
밑위길이 : 바지길이/5 + 바지길이/5 × 4/5에서 바지길이/5 + 바지길이/5 × 3/4로 수정하였다.



<그림 4> 남자바지 패턴 II



<그림 3> 남자저고리 패턴 II



(2) 2차 착의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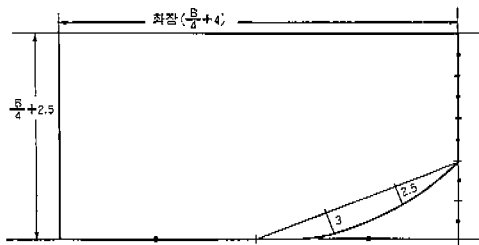
① 피험자 선정

1차 착의 상태 관찰 후 패턴을 수정하여 2차 착의 실험을 하였다. 피험자는 각 시제품의 기준치수 별로 8명씩 32명을 선정하였다. 피험자 선정은 1차의 경우와 같이 20-29세의 소비자로부터 단순 입의로 추출하고 입의추출된 피험자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적당한 시제품치수를 선택하여 입도록 하였다. 단 1차 피험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피험자들의 선정기준 신체치수 및 평가표 관찰기록은 1차 착의실험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② 2차 착의실험 및 패턴수정

사이즈별 시제품에 대한 품, 길이 등의 치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단지 저고리의 경우에만 미적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저고리는 소매의 배래선이 너무 둥근 곡선으로 되어 비활동적이므로 소매통을 진동 길이와 같게 하여 완만한 곡선배래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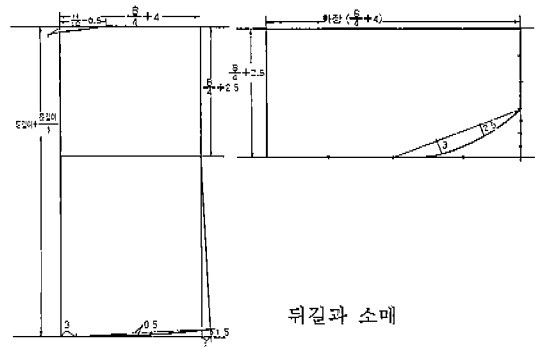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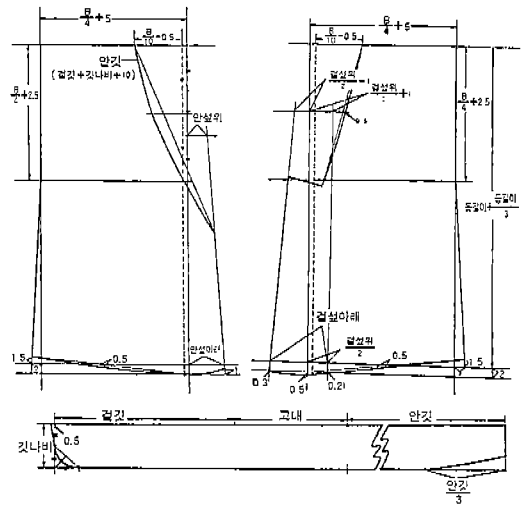
<그림 5> 남자 저고리 소매 패턴 III

3. 표준화된 패턴 및 표준치수 설정

(1) 표준화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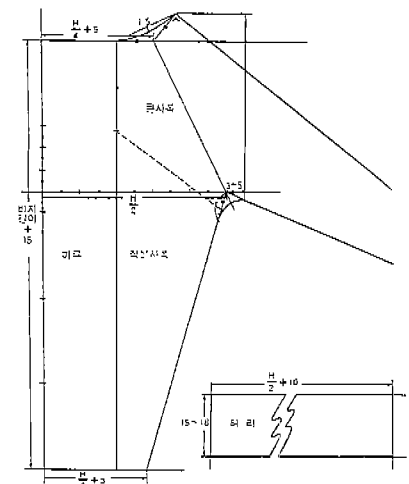
최종의 표준화된 패턴은 단순 입의 추출된 피험자를 선정하여 1, 2차의 착의 실험을 거쳐 개발되었다.

· 저고리



<그림 6> 남자 저고리 최종 패턴

· 바지



<그림 7> 남자 바지 최종 패턴

(2) 표준치수 설정

인체측정 및 그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수차례에 걸친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 5>와 같이 커버율을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와 다양한 치수의 패턴 제도를 고려한 치수 설정의 단계를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4>는 실제 기성복 생산시 치수의 개수와 최대의 커버율을 고려하여 제안한 표이다.

각 업체에서 다양한 치수표의 조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 5>에서는 4단계의 치수표 설정시

가슴둘레를 85cm부터 105cm구간, 키는 165cm부터 180cm구간을 포함시켜 치수표를 설정하였다.

(3) 세부 치수표 설정

남자 바지저고리의 경우에는 피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으므로 인체측정 자료의 분석결과와 공업진흥청의 남성복 치수(KS K 0050)를 참고로 하여 가슴둘레, 키 모두 5cm간격으로 등간을 나누었다. 참고문헌과 요인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준부위로 설정한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하여 5cm 등간

<표 4> 커버율을 고려한 남자한복 치수설정 단계

가슴둘레(cm)	키(cm)	4개	7개	9개	11개	커버율(%)	가슴둘레분포(%)
85	170		#	#	#	5.2	11.3
90	165		#	#	#	7.5	38
	170	#	#	#	#	12.0	
	175	#	#	#	#	11.3	
95	170	#	#	#	#	7.9	27.8
	175	#	#	#	#	10.9	
	180			#	#	4.5	
100	170			#	#	3.6	15.4
	175		#	#	#	5.9	
	180				#	3.4	
105	180				#	1.4	3.6
커버율(%)		42.1	60.7	68.8	73.6	73.6	(96.0)

<표 5> 다양한 치수의 패턴 제도를 고려한 표준치수 설정

가슴둘레(cm)	키(cm)	4개	7개	9개	11개	커버율(%)	가슴둘레분포(%)
85	170			*	*	5.2	11.3
90	165	*	*	*	*	7.5	38
	170		*	*	*	12.0	
	175			*	*	11.3	
95	170	*	*	*	*	7.9	27.8
	175		*	*	*	10.9	
	180				*	4.5	
100	170				*	3.6	15.4
	175	*	*	*	*	5.9	
	180		*	*	*	3.4	
105	180	*	*	*	*	1.4	3.6
커버율(%)		22.7	49.0	65.5	73.6	73.6	(96.0)



으로 한 cross table을 작성한 후, 회귀분석 결과와 실제 등길이, 화장의 분포도등을 고려하여 패턴 개발에 사용하였다.

설정된 패턴의 세부 치수는 <표 6>, <표 7>과 같다. 등길이, 화장, 엉덩이둘레, 바지길이의 항목은 가슴둘레와 키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와 실제 치수, 착의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고대의 경우는 뒤목너비가 가슴둘레와 키 모두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실제 목둘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측정에 여러 가지 번거로

움이 따르고 기성복화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고대너비를 산출하되 실제 목둘레 치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의 깃나비, 깃길이, 쇠나비등의 치수는 유행에 따라 저고리의 길이와 조화될 수 있는 기준치수를 정하되 가슴둘레의 증감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치수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작된 남자 바지저고리의 착장 모습은 <사진 1> <사진 2>와 같다.

<표 6> 남자저고리 치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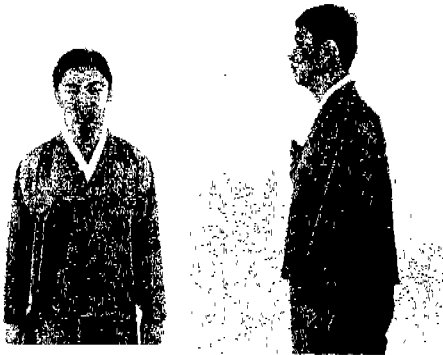
제품치수		90-165	95-170	100-175	105-180
가슴둘레		90	95	100	105
키		165	170	175	180
등길이		45	47	49	51
화장		78	80	82	84
깃나비		6.8	6.9	7	7.1
겉깃길이(B/4+5)		27.5	28.75	30	31.25
겉쇠나비	위(깃나비+1)	7.8	7.9	8	8.1
	아래(깃나비+4)	10.8	10.9	11	11.1
안쇠나비	위(깃나비-3)	3.8	3.9	4	4.1
	아래(깃나비)	6.8	6.9	7	7.1
저고리길이(등길이+등길이/3)		60	62.7	65	68
긴고름(나비×길이)		6.8×74	6.9×77	7×80	7.1×83
짧은고름(나비×길이)		6.8×62	6.9×65	7×68	7.1×71
진동(B/4+2.5)		25	26.25	27.5	28.75
수구(3/5진동)		15	15.75	16.5	17.25
고대		9(B/10-0)	9.2(B/10-0.3)	9.5(B/10-0.5)	9.8(B/10-0.7)

<표 7> 남자 바지 치수표

제품치수	90-165	95-170	100-175	105-180
키	165	170	175	180
엉덩이둘레	90	95	100	105
바지길이	105	110	115	120
허리나비	15	16	17	18
부리(H/4+3)	25.5	26.75	28	29.25
허리띠(나비×길이)	8×160	8×160	8×160	8×160
대님(나비×길이)	3.5×85	3.5×85	3.5×85	3.5×85



<사진1> 바지 저고리 착장 전신 모습



<사진 2> 바지 저고리 착장 정면·측면 모습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자 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하여 전통 한복의 미적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체에 편안하게 잘 맞는 남자 바지저고리 패턴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패턴개발시에는 인체측정 및 분석결과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기준치수로 설정하고 체형분석 결과에 유의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드롭치(가슴둘레 -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체형분류를 시도하였으나 20대의 경우 90% 이상이 역삼각형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 체형분류를 하지 않았다. 단지 인체측정 및 그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시제품 기준치수에서는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한 4단계의 표준치수를 설정하

고, 사이즈별 시제품 기본치수로 90-165, 95-170, 100-175, 105-180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기성복을 위한 표준치수 설정 시에는 좀더 다양한 조합을 필요로 하므로 가슴둘레와 키의 두 항목을 기준으로 커버율을 고려한 치수 설정 단계와 다양한 치수의 패턴 제도를 고려한 표준치수를 각 세부항목의 기본치수 제시와 함께 4단계의 사이즈를 제시하였고, 한복 기성복 산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다양한 사이즈의 한복 제작이 필요할 때를 위하여 다단계로 사이즈 수를 늘려가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한복의 패턴은 착용 후 한복의 실루엣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품과 길이항목의 여유분 산정에 유념하였으며, 저고리는 소매배래의 통을 줄여 활동에 편하도록 고려하였다. 바지는 하체가 길어진 신세대의 체형을 반영하여 기존 패턴에 비해 바지의 밑길이를 줄이고 다리부분의 길이를 증가시켰다.

한편 체형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20대 전 후반, 30대 전후반, 40-50세 연령군별로 신체치수의 차이를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 화장, 살 높이는 감소하고 앞품, 뒤품, 가슴둘레 등 둘레, 너비, 두께항목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사각형 체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이고 특히 아랫배의 둘레치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각 연령대별 패턴 개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체위에 적용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서양복에서와 같이 체형과 연계한 끊임없는 패턴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유행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제,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 황의숙(1999. 1), 『복식』, 42호, 한국복식학회, pp.127-136

- 강순제, 황의숙, 남윤자, 조효숙, 홍나영(1999. 5), 『복식』, 44호, 한국복식학회, pp.77-89
- 김분칠(1990), 한복구성학, 서울:교문사.
- 이주원(1991), 한복구성학, 서울:경춘사.
- 박경자, 임순영(1987), 한국의상구성, 서울:수학사.
- 조정희(1991), 한복, 서울:형설출판사.
- 문화체육부(1996,12), 한복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연구.
- 문화체육부(1997,12), 한복의 표준치수설정과 패턴표준화를 위한 연구